도교육청,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안사업 접수… 8월10일까지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사업의 제안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2019년 주민참여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도교육청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민 등 전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대상 사업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예산 사업(학교 집행 사업)이며, 단위학교에서 시행되지 않는 참신한 내용의 사업은 심사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단순 교육시설 및 시설설비 지원 예산사업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단순한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이 과다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사업은 온라인 접수(전북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주민참여예산제), 우편?방문접수 등을 통해 제안하면 된다.

공모 기간에 접수된 제안사업은 예비심사를 통해 대상사업 분야별 2배수 이내를 선정한 뒤, 9월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공모를 통하여 최종 4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당 1,500만원 이하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사업 제안자 및 사업추진 우수 교직원에게는 교육감상이 주어진다.

2018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에는 학생 21건, 학부모 29건, 교직원 및 주민 76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됐으며, 예비심사에서 70개 사업을 선정한 뒤 온라인 및 모바일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40개 사업을 선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은 주민들에게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교육예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전북도민이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현순영 박사 저서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한국문학사 획 그인 '구인회' 다각도로 조명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현순영 박사가 펴낸 '구인회의 안과 밖'(소명출판)이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한국학 분야)에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총 492면에 이르는 이 책은 일제 강점기에 결성되어 한국문학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구인회'를 통해 당대 문학의 다양한 국면들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했다.

김유영, 이종명, 조용만, 이태준, 정지용, 이효석, 이무영, 김기림, 유치진 등 예술인 9명이 모여 1933년 8월에 결성된 이 단체는, 순수문학 혹은 모더니즘 문학을 선도했으며, 한국문학이 근대에서 현대로 옮겨가는 격변기에 교량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책에서는 실재하는 자료들을 근거로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확증하거나 바로 잡는 한편, 새로운 사실들을 다수 밝혀 놓았다. 특히 이 단체가 개최했던 두 차례의 문학 강연회에서 행해진 내용을 정리한 대목, 회원 변동 양상 및 과정 그리고 구인회가 암묵적으로 견지했던 회원 입회 탈퇴의 조건을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또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영화감독이자 프롤레타리아 영화 운동가인 김유영의 행보에 특히 주목한다. 짧은 기간 동안에 카프 탈퇴, 구인회 결성, 구인회 탈퇴의 행보를 보인 그에 대해서, 한 예술가가 예술적 행보를 그토록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구인회가 모더니즘을 표방했던 단체이기 전에 1930년대 전반기 목적주의 문학과 상업주의 문학에 대응했던 하나의 방식이며 태도였다는 숙고할 만한 결론에 다다른다. 그리고 미지의 독자들에게도 용기를 내 책을 보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조심스럽게 내비친다.

저자 현순영 박사는 제주 출생으로, 2010년 고려대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 '서정시학' 신인상으로 문단에도 등단했으며, 평론집 '응시와 열림의 시 읽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2002년 이후 전주에 거주하면서 전북대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학술원은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전국의 대학 및 연구소 등 주요 기관에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마크를 부착해 보급한다. 2018년에는 한국학 분야 41종 41권을 포함하여 총 285종 307권이 선정되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창의대첩 28일부터 29일까지

원광대학교가 '지역사회 & 기업과 함께하는 WINNER LINC+ 창의대첩'을 28일부터 29일까지 연다.

무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창작 프로그램인 창의대첩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하고, 원광대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센터가 주관한다.

지난 2015년 시작된 '창의대첩'은 8시간의 사전교육을 거쳐 실제 시장진출 환경에서 지역사회 및 산업체 수요 아이디어 모델을 기획하는 이매진트랙과 시제품을 제작하는 메이킹트랙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구상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시제품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창의력을 펼친다.

또한, 지역 기업 혹은 기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우수 결과물에 대한 시상과 함께 학생들의 아이디어 및 시제품을 해당 기업체와 연계해 시장진출도 추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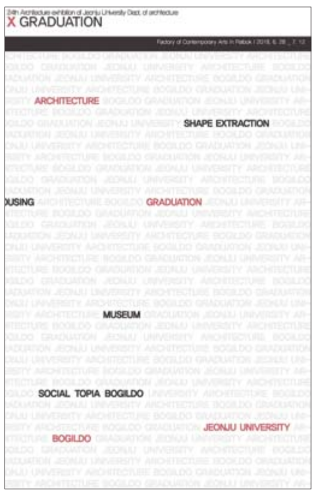
/익산=우병희 기자

사랑나눔 한방의료봉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사단법인 햇살마루와 함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면사무소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 이상향을 건축한다"

전주대 건축학과, 28일 건축전 개막식

전주대 건축학과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라는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보길도에 방문해서 그곳 사람의 삶의 역사, 산업과 자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축을 통해서 주거, 교육, 경제, 관광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바지선에 교육시설을 더한 현지화 직능교육장을 개설하고, 외지인이 많이 유입된다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지인과 원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 중심의 공동주거 공간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로디자인 대표 김동진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김 소장은 지드래곤이 매입하여 화재가 됐던 '청담 마치래빗', 서울시 최우수 건축상을 수상한 '논현 마트료시카', '상도 카모플라주'를 설계한 우리나라 정상급 건축가다.

한편 전시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김재훈 기자

이공계 학술단체지원사업 126개 과제 선정

교육부, 2018년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 추진

교육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18년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 대상으로 126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32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술단체(학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물들을 확산하기 위해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사업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미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구축한 국제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SCI(E)・네덜란드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국제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SCOPUS) 등재 학술지 발행 학술단체 등에서 총 177과제(학술대회 11과제, 학술지 166과제)를 접수했고,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126개 과제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학술지 편집인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학술지의 경우 논문 인용도 및 온라인 접근성, 학술대회는 발표 논문 및 참여 국가 수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분야별로 국제학술지 109개 과제(26억5000만원), 학술지국제화 9개 과제(2억1000만원), 국제학술대회 8개 과제(3억5000만원) 등이다.

과제 선정 목록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시스템(www.en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간된 연구성과물은 학회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이언스센트럴(ScienceCentral) 누리집(https://www.e-sciencentral.org)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뉴시스

완산구청, 2018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

전주시 완산구청은 최근 효자동 홈플러스 문화센터 앞에서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기동대!! 2018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동상담실은 효자동 홈플러스 문화센터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실무 담당직원들이 참여, 상담을 통해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각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가구에게 개별안내문을 배부하였지만 정보력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동수당 관련 리플릿 등을 나눠주는 등 사전신청 홍보를 했다.

한편, 2016년도부터 시작된 희망기동대 이동상담실은 다중집합장소나 복지관등을 순회하며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 내 복지자원을 연계해주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